

국내인구 4년간 줄어 5127만명...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

행안부, 4년전 5185만명 '정점' 이후 지난달까지 57.4만명 줄어 서울 거주민 973만명→937만명 유소년 인구 줄고 고령화는 가속



경기 구리지역의 한 '중장년 일자리 게시판' 앞에 구직자 등 시민들이 모여 있다. 올해 전국 여성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 넘어서는 등 노동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전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국내 총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 정점을 찍은 뒤 4년 반 동안 매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0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거주민 수는 512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8월(5126만 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인구는 2014년 말 5132만 명에서 2015년 말 5152만 명, 2016년 말 5169만 명, 2017년 말 5177만 명, 2018년 말 5182만 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 갔다. 이후 2019년 11월(5185만 명)까지 계속 역대 최다를 경신한 후 그해 12월 감소

로 돌아섰다.

역사상 정점인 5185만 명에 달한 이래로 올해 5월까지 4년6개월간 57만 4000명(-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도시 거주민 수는 서울이

973만 명에서 937만 명으로, 부산이 341만 명에서 328만 명으로 감소했다.

8개 주요 시 가운데 대구(244만 명→236만 명)와 대전(147만 명→144만 명), 광주(145만 명→141만 명), 울산

(114만 명→110만 명)도 동반 내리막 길을 걸었다. 9개 도 중에는 경북(-12만 명)과 전남(-7만 명)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4년6개월간 유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령화는 심화했다. 전국 만 9세 이하 인구가 2019년 11월 말 417만 명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324만 명으로 줄었다. 10대(497만 명→463만 명)와 20대(681만 명→609만 명)도 꺾을 같이했다.

반면, 60대(626만 명→772만 명)를 비롯해 70대(359만 명→404만 명), 80대(162만 명→207만 명) 등은 크게 늘어났다.

60대 인구는 40대 인구를 곧 따라잡는다. 여성의 경우, 이미 60대(올해 5월 392만 명)가 40대(384만 명)보다 많다. 여성은 또 80대(131만 명)가 9세 이하(158만 명)와 맞먹는다.

평균연령 45세를 넘긴 지역도 많다.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부산과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의 거주민 평균나이가 45살 이상이다. 전국 평균은 2019년 11월 42.6세에서 올해 5월 45.0세로 올랐다.

통계청은 98년 뒤인 오는 2122년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1936만 명으로, 2000만명을 밑돌 수 있다고 봤다. 저출산 여파로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매해 1%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추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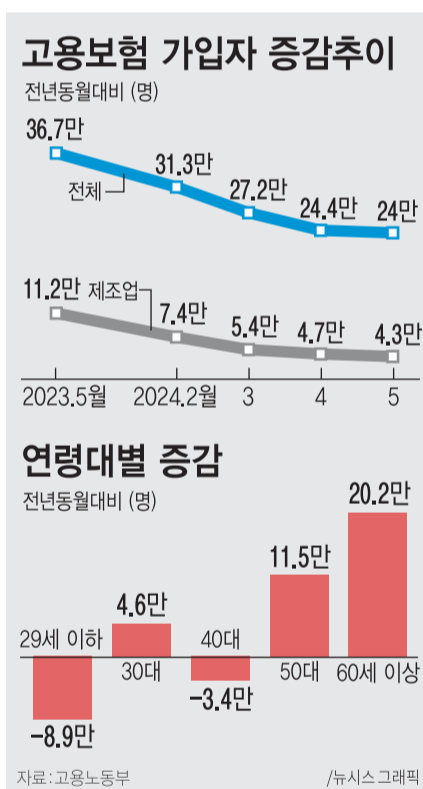
지난해 말 서울에서 열린 한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문화적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어떻게 해야 외국인 유입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1개월째 감소세

고용부, 지난달 상시가입자 1539만명 전년 대비 24만명, 1.6% 증가 그쳐

20대 가입자 3.6%, 40대 1.0% 줄고 60세 이상 8.5%, 50대 3.5% 늘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대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영향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작년 7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로 2021년 2월(19만 2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가입자 증가폭 둔화는 주로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 영향이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8만9000명(-3.6%), 40대 가입자는 전년 대비 3만4000명(-1.0%) 줄었다. 20대는 21개월째, 40대는 7개월째 감소 추세다.

29세 이하는 도소매(-2만명), 정보통신업(-1.8만명), 보건복지(-1.1만명) 위주로, 40대는 건설업(-1.4만명), 도소매(-7000명), 제조업(-5000명), 부동산업

(-5000명) 위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50대 이상 고령자가 주도한다.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전년대비 20만2000명(8.5%), 11만5000명(3.5%) 증가했다. 30대도 4만6000명(1.3%) 늘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16.8%로 29세 이하 가입자 비율(15.5%)을 넘어

선 상태다. 60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작년 10월 29세 이하 가입자 비율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령자 증가와 20대, 40대 감소가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인구감소 폭과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며 "40대가 감소하는 업종이 건설, 도소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라 산업 전체의 총량적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분 중 내국인은 18만2000명, 외국인은 5만7000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4만3000명(+1.1%), 20만명(+1.9%)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8000명 감소해 10개월째 내림세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8000명 감소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8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천경기 과장은 "외국인 가입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엑트지오사 의뢰, 경쟁입찰로 공정 선정”

>> 1면 '동해 심해 광구...'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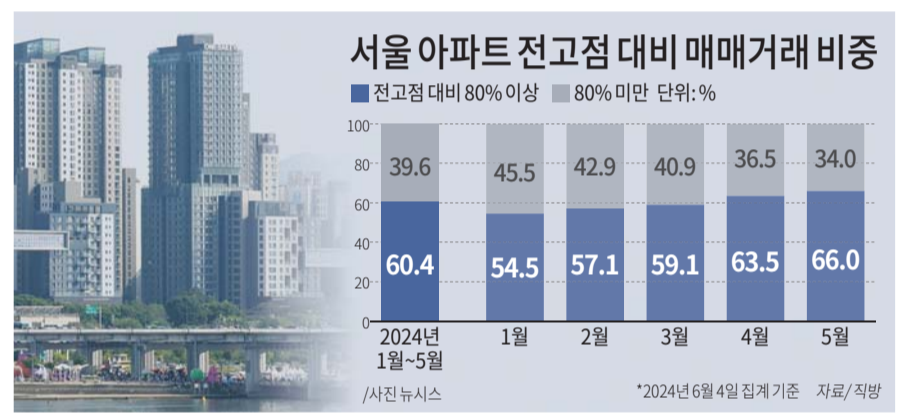
엑트지오(Act-Geo)사에 분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선 "2023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엑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비토르 아브레우 엑트지오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4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으나, 최 차관은

이날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3개"라고 정정했다. 또 아브레우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 리스크"라고 한데 대해선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3번(주작, 흥계, 방어)의 심해 시추에서 '유미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언급한 것이나, 통역을 거치며 잘못된 의미로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엑트지오가 체납한 세금을 석유공사

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최 차관은 "엑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2023년 3월인데, 석유공사가 엑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2023년 5월부터"라고 말했다.

또 엑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선 "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할 당시 엑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는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영업을 했고 여러건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10채 중 6채 작년 고점대비 가격 80% 회복

직방, 국토부 실거래가 매매 분석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중 60%가 지난해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플랫폼업체 직방이 지난 1~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1만4810건 중 전년 고점 대비 80% 이상 매매 비중은 60.5%(8939건)로 집계됐다. 매매 중 36.6%는 지난해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90% 미만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70% 이상~80% 미만 가격선의 거래도 전체 거래의 32.1%를 차지했다. 종전 최고가보다 높거나 같은 거래도 9.3%를 차지하며 거래량 회복과 함께 거래가격도 전고점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전고점 대비 70% 이상~80% 미만의 가격이 36.7%로 가장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달 80% 이상~90% 미만 거래 비중이 39.8%로 높아졌다.

지자체별 거래가격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종로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의 20% 이상은 종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우 80% 이상 가격이 회복한 거래가 3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전고점 거래가격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80% 이상 회복한 거래가 열

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를 보면 서초구(90.2%), 용산구(86.1%), 강남구(84.9%), 종로구(82.2%), 마포구(79.8%), 성동구(75%), 중구(73.2%), 양천구(72.9%), 영등포구(72.9%), 송파구(71.8%), 동작구(70.5%), 광진구(70.4%)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다. 새아파트와 대형아파트의 선호 영향에 따라 매매 가격이 종전 가격을 경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노원구(22.1%) ▲도봉구(26.2%) ▲강북구(30.2%) ▲성북구(42.6%) ▲관악구(43%) ▲금천구(48.7%) ▲구로구(49.7%)는 전고점 대비 거래가격이 80% 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작았다.

직방은 올해 저리 대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며 서울 아파트값이 일부 전고점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근 연일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도 실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서울 아파트는 공급 축소 전망에 따라 희소 가치가 높은 단지에 수요가 쏠리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라면서도 "물가 상방 압력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지방의 미분양 증가, 경기 불안 등의 주택 수요 유입을 제한하는 요소도 상존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보합 흐름이 유지되며 입지별 수요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